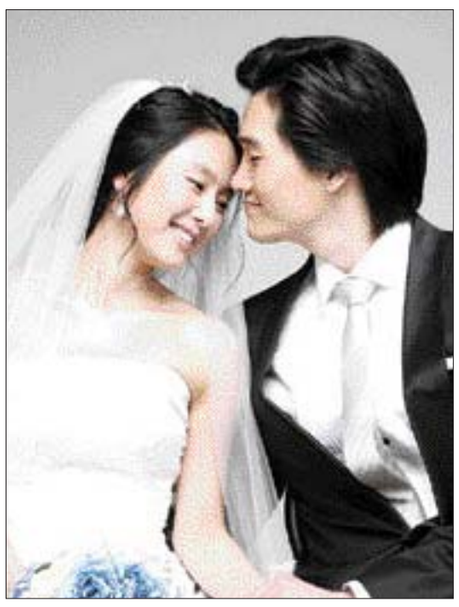
‘멜로 영화’ 충무로냐 할리우드냐

“파격적 소재” “로맨틱 코미디” … 극장가 한·미 전쟁

쌍둥이 형제의 강렬한 구애에 매혹된 여자 - 비밀애

휴가 나온 군인과 여대생 사이 러브스토리 - 디어존


〈비밀애〉

〈폭풍전야〉

극장가에 다양한 소재의 멜로 영화가 등장했다. 할리우드산 멜로 영화가 전형적인 로매틱 코미디 스타일이라면, 충무로가 내놓은 멜로는 파격적인 소재가 눈에 띈다.

중년 남녀의 사랑을 성숙한 시선으로 그려낸 ‘사랑은 너무 복잡해’는 남편과 헤어진 지 10년 차 이혼녀와 그녀의 전 남편, 그리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사려 깊은 이혼남과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맘마미아’,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등을 통해 건재함을 과시한 메릴 스트립이 주연을 맡았으며 알렉 볼드윈, 스티브 마틴 등 이제는 중후한 매력을 뽐내는 배우들이 함께 출연한다.

감독과 각본을 맡은 낸시 메이어스의 이름은 작품의 완성도를 보장한다. 멜 깁슨이 주연을 맡았던 ‘왓 위민 원트’, 잭 니콜슨과 다이앤 키튼의 ‘사랑할 때 버려야 할 아까운 것들’, ‘로맨틱 할러데이’ 등이 그녀의 작품이다.

지난주 개봉한 ‘디어 존’은 ‘노트북’, ‘워크 투 리멤버’, ‘병 속에 담긴 편지’ 등을 쓴 니콜라스 스파크스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멜로 영화다.

군 복무 중 휴가를 맞아 고향을 찾은 존과 여대생 사바나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영화 ‘맘마미아’에 아만다 시프리드와 채닝 테이텀이 주연을 맡았다. ‘E.T’의 주인공 엘리엇을 연기한 헨리 토마스가 사바나의 새로운 연인 ‘팀’으로 등장한다.

뉴욕의 잘 나가는 커리어우먼이자 두 아이의 엄마인 싱글맘과 연하남 베이비시터의 유쾌한 사랑을 그린 로맨틱 코미디 ‘사랑은 언제나 진행중’도 눈길을 끈다.

캐서린 제타 존스와 저스틴 바사가 나이차를 뛰어넘은 사랑을 연기한다.

‘비밀애’는 기존 멜로와 다른 파격적인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한 날 한 시에 태어난 두 형제와 강렬한 사랑에 매혹되는 한 여자의 치명적인 사랑을 담아낸 영화로 개봉 전부타 정사신 등이 화제가 되고 있다.

‘봄날은 간다’에서 멜로 연기의 정석을 보여줬던 유지태가 1인 2역을 맡아 색다른 연기를 보여주며 ‘올드보이’에서 유지태와 이룰 수 없는 사랑을 연기했던 윤진서가 함께 호흡을 맞췄다. 류훈 감독의 데뷔작이다.

4월 1일 개봉하는 ‘폭풍전야’는 절망 속에서 운명처럼 만난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사랑에 배신당한 탈옥수 수인은 자신처럼 사랑에 대한 상처를 지닌 미아를 만나 사랑을 느끼고, 미아 역시 비밀을 간직한 듯한 수인에게 절절한 감정을 느낀다.

‘피터팬의 공식’으로 연출력을 인정받은 조창호 감독의 두번째 작품이다.

드라마 ‘선덕여왕’을 통해 스타덤에 오른 김남길과 ‘미쓰 홍당무’ 등에서 연기 잘하는 배우로 눈도장을 찍고, 현재 MBC ‘우리 결혼했어요’에 출연중인 황우슬혜가 주연을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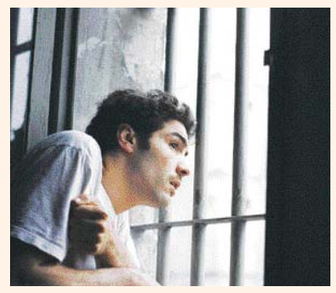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사랑은 너무 복잡해〉

〈사랑은 언제나 진행중〉

〈디어 존〉

새 영화 예언자



19살 프랑스 아랍계 청년이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6년 동안 몸으로 겪으며 깨친 생존법칙을 담은 범죄 스릴러물로 속도감 넘치는 전개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2009년 칸국제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했고, 올 아카데미 외국어영화상 후보에 오르는 등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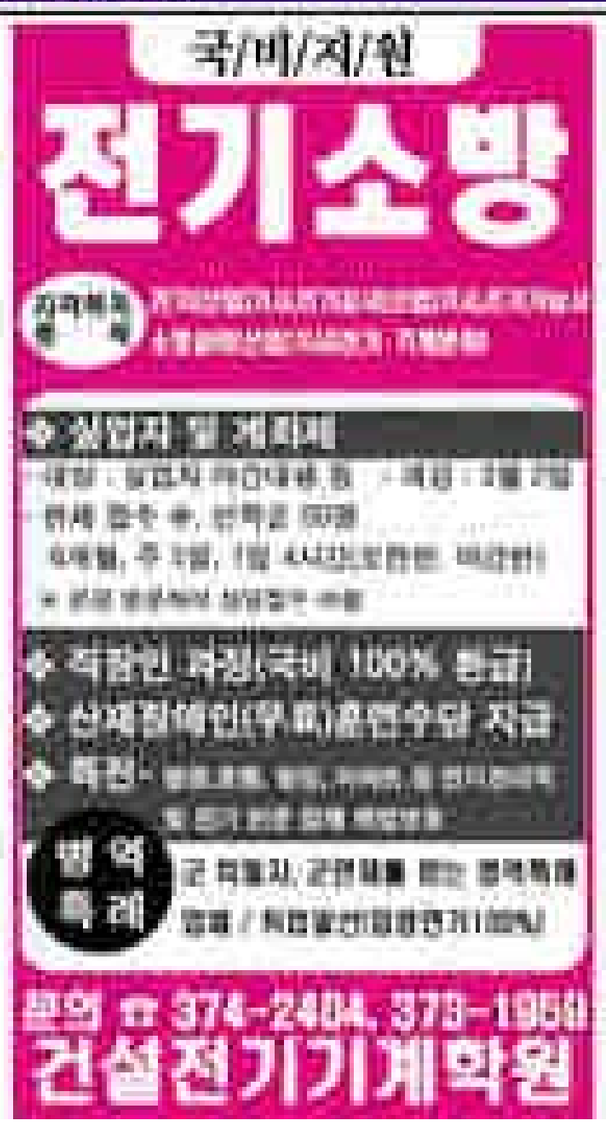
부모 얼굴도 모른 채 소년원을 들락거리다 6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들어

6년간 소년원 생활중 살인도 하고 세력키워 사회 거물로 성장한다

간 까막눈 말리크는 늘 혼자다. 어느날 감옥을 장악하고 있던 코르시카 갱 두목 푸치아니가 접근, 소송의 중요한 증인인 수감자 레예브를 죽이라고 강요한다.

레예브를 살인한 말리크는 무치아니의 신임을 얻게되고 감옥 안팎에서 조직의 임무를 수행하며 거물로 성장해 나간다. 그는 남몰래 자신만의 조직체계를 만들어가는데….

아랍계 배우 타하 라임이 인공 말리크 역을 맡았으며 자크 오디아르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2시간 30분으로 러닝타임이 다소 길지만 꽉 짜인 스토리와 배우들의 열연으로 관객들을 흡입한다는 평을 받았다. 〈18세 이상 관람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